

**히타치, 세계 첫 블루레이 캠코더 출시**



히타치가 올 가을 세계 최초로 블루레이 캠코더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제품은 풀HD급 영상을 최대 한 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으며 현재 미니 DVD와 크기가 같은 8cm 블루레이 디스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작은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캠코더 또한 콤팩트하게 디자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8cm의 기록용 블루레이 디스크는 출시돼 있지 않지만 히타치는 그룹 계열사인 히타치맥셀과 함께 디스크를 캠코더 출시일에 맞춰 내놓을 방침이다. 기타 특징으로 200만화소의 동영상 촬영, 530만화소의 정지영상 촬영 등이 있다.

히타치는 “세계 캠코더 시장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저장 매체로 한 제품과 8cm DVD를 사용하고 있는 캠코더 두 종류로 나뉘고 있지만 DVD 캠코더로는 HD급 영상을 15~30분 밖에 촬영할 수 없고 HDD 캠코더 역시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루레이 캠코더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휴대폰 인구 5억 돌파**

중국 신식산업부는 6월 말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5억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는 5억164만명으로,

100명 중 38.3명꼴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자는 올 들어 서만 4056만명이 증가했으며 한달 평균으로는 676만명이 증가했다.

문자메시지 발송건수도 2790억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5% 늘었다.

개발이 부진한 서부와 농촌지역에서 보급이 늘면서 중국 휴대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이나모바일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올들어 농촌지역에 저가 요금형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인텔과 ST마이크로의 플래시메모리 합작사명 뉴모닉스로 결정**

인텔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공동 설립하는 플래시메모리 합작회사의 명칭을 뉴모닉스(Numonyx)로 결정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뉴모닉스는 본사를 스위스에 두고 ST마이크로와 인텔이 각각 48.6%와 45.1%의 지분을 소유하며 투자회사인 프랜시스코 파트너스가 나머지 6.3%의 지분을 가진다.

뉴모닉스는 인텔의 노어플래시 사업부와 ST마이크로의 노어 및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각각 인수해 출범한다. 회사 설립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노어플래시를 중심으로 하며 낸드플래시와 P램 등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노어플래시 분야에서는 41%의 점유율을 차지(2006년 기준), 31%의 스펀션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뉴모닉스의 CEO는 브라이언 해리스 인텔 플래시 메모리 그룹 총괄 매니저 및 부사장이 맡는다.

**일본 샤프 대형 TV시장 LCD가 주도**

일본 샤프가 지난 7월 2일 도쿄호텔에서

새 LCD TV 아쿠오스 G 시리즈를 발표했다. 샤프 측은 이 제품이 고선명예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 8.1cm라고 밝혔다.



LCD가 37인치 이상 대형TV 시장에서 PDP를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강자인 샤프전자는 최근 LCD TV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데라다 히로쓰구 샤프 AV그룹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3월) 중 일본내 LCD TV의 판매가 11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기간 47만800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PDP TV 판매량에 비해 세 배 가까이 큰 규모다.

지금까지 관련 전문가들은 PDP TV가 제조원가나 화질면에서 LCD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LCD 패널 공정상의 효율화로 인해 화질면에서 LCD TV가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LCD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파나소닉으로 유명한 마쓰시타전기가 PDP의 생산량을 향후 2년내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지만, 관련 중소기업체들은 여전히 가격 경쟁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특히 마쓰시타에 이어 세계 2위의 PDP 생산업체인 LG전자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심각한 경영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G는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내 3개 PDP 생산라인 중 하나를 폐쇄시켰다고 FT는 전했다.

**클리어와이어-스프린트넥스텔, 와이맥스 사업 제휴**

미국 모바일와이맥스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여온 클리어와이어와 스프린트넥스텔이 전격 제휴를 발표했다. 두 회사는 내년 상반기 미국 최초의 전국 단위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와이맥스는 삼성전자 와이브로와 인텔 와이맥스 기술을 접목한 초고속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모바일와이맥스망이 구축된 곳에서는 노트북PC나 PDA로 하향 최고속도 19.2Mbps, 상향 최고속도 4.95Mbps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클리어와이어와 스프린트넥스텔은 올 연말부터 각자 모바일와이맥스 망을 구축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단일 브랜드로 전국 단위 서비스를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망 구축을 최적화하기 위해 각자 할당받은 2.5GHz 대역 주파수를 맞교환해 주파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클리어와이어는 2004년 8월부터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와이맥스 기술을 이용해 하향 최고속도 1.5Mbps, 상향 최고속도 256Kbps의 초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노키아, 폰내비게이션 사업 본격화**

노키아가 위성항법장치(GPS)의 초기 탐색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 이를 통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7월 22일 노키아는 기존 3분 가량 걸리던 GPS 초기 수신 시간을 1분으로 단축시킨 기술을 자사 스마트폰인 'N95'에 탑재, 폰내비게이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랄프 에릭 쿤츠 노키아 내비게이션&매핑



사업부장은 "GPS 수신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간 폰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이번 기술의 적용으로 세계 어디서나 전원을 켜 뒤 1분내 GPS 수신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GPS 기반 휴대폰이 이동통신사의 셀 사이트(cell sites)를 이용해 GPS 신호를 수신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노키아가 개발한 서비스는 이동사 네트워크를 우회, 심(SIM) 카드의 데이터와 위성 신호를 읽는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GPS를 수신한다.

노키아는 지난해 독일의 GPS 업체인 '게이트'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 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베트남 전자산업 적극 육성 2010년 수출액 5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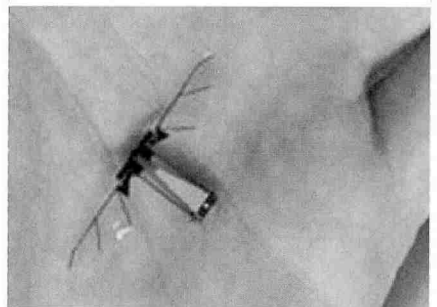
응웬 탄 동 베트남 총리가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가를 골자로 하는 전자산업 발전 계획을 전담 추진할 것을 베트남 우편통신부에 지시했다고 6월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전자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제품 수출액은 14억달러로, 2005년에 비해 34.1%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10년 수출액을 30억~5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관련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견인차로 자리잡게 할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는 50만명의 전자산업 종사자들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업체 유치와 기술도입을 위해 세제 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2010년까지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해 투자환경 조성과 업계 권리보장에도 나선다.

**비행하는 초소형 파리로봇 개발**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 하늘을 날 수 있는 초소형 파리로봇이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고 지난 7월 19일 보도했다.

이 로봇은 파리와 비슷한 크기와 생김새로 날개폭은 3cm이며 무게는 0.06g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언뜻 보면 진짜 파리로 착각할 수도 있다. 날개를 비롯한 각종 부품은 탄소섬유 화합물로 구성돼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

지금까지 많은 곤충형 로봇이 만들어져 왔지만 한 쌍의 날개를 가지고 실제 곤충처럼 비행할 수 있게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하버드대학 로버드 우드 교수는 "이번 로봇 개발에 7년이 걸렸다"면서 "기존의 로봇 기술과는 전혀 다른 마이크로 전기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초소형 로봇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